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상승선 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4-1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선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4-1

上昇線

상승선

상모택 이



4-1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4 제1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31~34] 김규동, 나비와 광장(연계), 조정권, 산정묘지 11(비연계)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상상국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대장내시경 브이로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쩌다보니 파이널 임팩트 원과 해설 강의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간결하지만 명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현대시 세트입니다. 이거 그냥 풀자마자 신나서 바로 담당자님께 연락 드렸어요. **문제 ~~개잘냈다고.~~** 아닌가요? 풀 때 이런 느낌 안 들었나요? 32번 답은 진짜 명확한데, 오답 소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33번 역시 답은 명확한데, 4번 선지 진짜 잘 냈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좋으면 이렇게 설명을 너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빠르게 임팩트 원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가 연계고 (나)가 낯선 현대시입니다. 항상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시험 때, (나) 작품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해석이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낯선 현대시는 시험 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상할 시간은 더더구나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맥락'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 시는 이런 시다 정도는 잡혀야 선지 판단 시, 사고가 안 납니다. 〈보기〉를 먼저 읽을지, 지문을 먼저 읽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강사한테 미루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문학을 좀 친다. 내지는 추상적인 내용에도 그다지 타격이 없다 하시면 지문부터 봐도 됩니다만, 내가 뭐가 납득이 잘 안되면 못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기부터 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내가 지문부터 읽는 스타일인데, 시가 오늘따라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기부터 살짝 읽고 들어가도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은 정해두시되, 시험장 상황에 따라 달리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시부터 읽는 편이긴 하지만, (나) 시는 저도 처음 보는 시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기 위해, 〈보기〉부터 읽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서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통해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가)는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직면한 대상의 처지를 통해, (나)는 육체의 유한성을 상기하고 죽음에 대비하는 화자를 통해 현실 초극의 의지를 지닌 실존적 자아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 시는 구구절절 떠들어봤자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직면한 대상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여 주는 시입니다. 사실 연계이기도 하니, 어느 정도 맥락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나) 시 역시 육체의 유한성,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입니다. 이게 맥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 시가 얼마나 해석이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런 시라는 게 박힌 채로 시를 읽어야 그래도 〈보기〉를 먼저 본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로 들어갑시다.

(가)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 연계여도 시는 읽어야합니다. 하던 걸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목이 나비와 광장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상징적 의미를 알게 되면 시가 뚫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보기〉를 읽고 읽어서 짐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비가 대상일 거고, 광장이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공간이겠지요. 이렇게 대응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목을 보고, 얘가 뭘까? 정도는 염두에 두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1연에서는 나비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방향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은 아무리 봐도 좋은 현실일 수는 없고요. 연계 설명은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에서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眼膜)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

- 광장의 컨디션이 제시됩니다.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곳입니다. 삭막하고 절망적이죠. 심지어 투명한 광선의 바다가 나비의 각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방향 상실에 뭐도 안 보이고... 절망적이네요. 계속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나비에게는.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 가쁜 제트기의 백선(白線)과 이동하는 계절 속 –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燐光)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 경험치가 약간이라도 있다면, 그냥 좋은 말이 하나도 없죠. 플마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도 될 정도의 시입니다. 모두 현대 문명으로 퉁쳐버리면, 현대 문명의 폭력성 앞에 나약한 날개를 파닥이는 나비 정도가 되겠는데요.(이미 연계 대비를 하고있는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 아름다운 영토, 푸르른 활주로, 화려한 희망이 있는 미래를 '상상'하는 군요. 제길 어딜가나 '상상'이군요.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 실전이면 얘가 보여야죠. 결국 여러분들은 〈보기〉를 읽고 읽었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현실 초극의 의지가 여기있구나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보기〉를 보고 지문을 대응하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보기〉의 맥락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 김규동, 「나비와 광장」 –

(나)를 잘해야 합니다. 낯선 현대시잖아요. 모르는 시라고 적당히 뭉개지 마시고, 차분하게 읽기는 하셔야 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차분히 읽으면 어느 정도 맥락은 잡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입술의 노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스스로의 영혼을 입술로 불어서
불씨를 일으키는 데 사용했던 입은
흙으로 되돌아가도,
입술의 노래는
대지에 묻히지 않으리.
- 차분히만 읽어도 바로 파악됩니다. 입술이 부른 노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입은 사라지겠지요. 노래는 남는답니다. 벌써 시를 좀 읽어본 아이들은 감이 옵니다. 결국 〈보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유한성이죠. 다만 노래는 남을 겁니다. 이걸 조금 확장해보면(여러분들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나.) 인간의 육체는 사라져도 흔적, 자취는 남긴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요.

내가 되돌려주어야 할 것은
고뇌를 담기 위해 태어난 두 손,
방황을 하기 위해 태어난 두 다리,
그리고 땅의 주민임을 표시하는 살,
언젠가는 흙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이 형벌의 뼈.
아, 아, 암흑의 관을 쓰고 땅을 기어가는 흉한 짐승처럼
고뇌하는 이마와 방황하는 긴 막대기를 지닌
이 형벌받은 살.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혀.
- 그렇죠. 인간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사라져요. 소멸이요. 유한성이요.

하나 혀로서 부른 입술의 노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하나의 나약한 나뭇잎조차 소리없이 떨어지는데도
힘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스스로의 영혼을 불어 끄기 위한 힘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노래는 남는다니까요. 반복되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너의 노래는 남을 거야. 이것만 머리에 남겨도 시 잘 읽은 겁니다. 인간에게도 스스로의 영혼을 불어 끄기 위한 힘이 필요한 것 아닌가는 인간도 자신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힘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로 인식하면 좋고요. 안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의 육체는 사라진다. 그러나 노래는 남는다. 의 맥락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밤이 오고 있다.
대지여! 우리들이 달려가고 있다,

아직은 관뚜껑을 닫지 말아다오.
아직은 관뚜껑을 닫지 말아다오.
우리들 모두는
바람 속을 뛰어가는 촛불이다.
- 아 뭔가 시 읽으면서 '상상'이 되어서 좀 웃었습니다만, 인간의 유한성을 인지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보이네요. 이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낯선 현대시를 차분히 읽고 맥락을 잡는 연습을 평상시에도 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쉬울 땐 시를 대충 읽고 선지 판단해도 문제가 없으나, 시가 어려워지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 조정권, 「산정묘지 11」 -

31.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답은 아주 평이한데, 오답 선지 몇 개는 공부할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 시험 때 어떻게 빠르게 소거할 것인가를 연습하기도 좋습니다. 저는 일단 세로로 스캔하면서 2번 선지와 5번 선지를 지워버렸습니다. '맥락'이죠. 응~ 딸깍~ 그런 시 아냐~ 이겁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된 시도 아니고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내는 시도 아니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이건 거의 학생들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유사한 통사 구조만 있으면 맞는 건데, (나)시에서는 이미 읽으면서 유사한 문장 구조 봤고요. (가)시는 확인해야겠지만 4연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다만 1번 선지와 4번 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① (가)는 ~~(나)와~~ 달리,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우선,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에 주목해 봅시다. 보통은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는 시행을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지막 연만 확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에서는 계절 속-, 유역- 이렇게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있죠. 살, 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나)와 달리'가 틀린 겁니다. 시상 집약은 출제되면 틀리기 어렵습니다. 시상이 집약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따지는 부분 아니라는 겁니다.

④ (가)는 현재형 어미를 활용하여, (나)는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나)의 구체적 지명이라는 말이 애매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제목이 '산정묘지'이므로 산정묘지 역시 구체적 지명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산정묘지 자체는 구체적 지명이 아닙니다. 구체적 공간이라고 하면 모를까, 지명이려면 정말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철리', '선제리 아낙네들' 이런 것처럼요.

32.

개인적으로 정말 잘 냈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답 선지는 명확한데, 오답 선지 소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꽤 디테일한 판단을 묻고 있습니다. (가)가 연계니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공부하기에도 좋죠. 일단 이런 문제를 보실 때 염두에 두실 것은, 1) <보기>가 없다 2)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기>가 없다는 것은 판단의 준거가 없다는 것이고, 심지어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선지를 답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이런 문제의 특징은 판단이 되지 않는 선지가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세모'가 있을 수는 있다. 단! 답은 명확할 것이다. 답은 무조건 느슨하거나, 안정적인거나, 방어적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설명을 들었을 때 납득이 되어야 하는 게 답이어야 하니까요.

① 1연의 '현기증'은 2연의 '작열한 심장'과 달리 대상이 느끼는 위기감을 부각한다.

- 플마가 전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플마도 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1연의 현기증 나는 활주로, 이 시에서 좋을 리 없습니다. 2연의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 심지어 이걸 축일 샘물도 없는 상황. 좋을 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비에 대입을 해보면, 나비가 현기증을 느끼고, 나비가 작열한 심장이 있고, 이 모든 상황은 현대 문명을 마주한 나비가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작열한 심장'과 달리가 틀린 겁니다.

-

② 3연의 '묘지'는 1연에서 대상이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 데 따른 인상을 부각한다.

- 답이죠. 골라놓고 보세요. 엄청 방어적이죠. 내지는 엄청 느슨하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들은 엄청 구체적으로 의미를 따져야 하는데, 이 선지는 쉽게 말해 묘지와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 이미지 비슷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의 참상, 내지는 죽음과 상통하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다만 이런 문제에서 얘를 한 번에 손가락 걸긴 쉽지가 않아서,(이거다!라는 느낌보다는 맞겠지? 정도라) 아마 다른 걸 다 소거를 하긴 해야 할 겁니다.

-

③ 4연의 '영토'는 2연의 '바다'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대상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가리킨다.

- 4연의 아름다운 영토는 좋은 겁니다. 2연의 바다는 나비의 각막을 차단하는 광선의 바다입니다. 좋을 리 없죠.

④ 4연의 '푸르른 활주로'는 3연에 제시된 '인광'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연의 푸르른 활주로 역시 좋은 겁니다. 3연의 인광의 상태가 지속되는 건 좋을 리가 없어요. 거기에 밀려 나비가 힘겹게 날개를 파닥거리는 상황인데요.

⑤ 5연의 '승천'은 4연의 '지표'를 떠나는 행동을 빗댄 것으로 대상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보여 준다.

-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래라고 했으니, '승천' 역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신도 기적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부각할 뿐이죠. 오히려 문제 상황에 가깝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33.

개잘냄!!!!!!!!!!!!!!!!!!!!!!!!!!!!!!!! 전 이런 문제 보면 흥분합니다. 왜냐, 답도 깔끔한데 4번 선지가 너무 잘 낸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얻어갈 것도 있고요. 선지 두 개만 보겠습니다.

③ ㉢은 '신'과 '기적'이 부재하는 현실을 부각하여, '신화'에 내재된 허구성을 밝힌다.

- 보자마자 딸깍! 했는지 보세요. '맥락'입니다. 쉽게 말해 그런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현대 문명에 직면한 나비가 이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신화에 내재된 허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④ ㉣은 '되돌려주'는 일의 순서를 나타내어, '혀'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애착을 부각한다.

- 근데 이 선지를 너무 잘 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혀'라고 했는데, 이걸 보고 '혀'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애착까지는 에바아니야? 라는 학생이 있는 거고, 맞지, 맞지 끄덕거릴 수 있는 학생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이길 바라죠. 왜 혀가 마지막이고, 이게 왜 혀에 대한 애착일까요? 지문에서 찾아도 되고, 사실 이미 머리에 있으면 더 좋고요.

> 하나 혀로서 부른 입술의 노래는
>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이해하셨죠? 인간은 유한해서 몸은 사라지지만, 노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노래는 누가 불러요. 입술과 혀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제 단과 수강생들은 아시지만 제가 답의 선명도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시를 차분하게 잘 읽었거나, 돌아가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끌고 올 수 있었다면 4번 선지는 아주 선명하게 맞게 되는 선지가 됩니다. 잘 낸 선지입니다.

34.

얘도 잘 냈습니다. 시즌 2 수업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의 선명도에 대한 얘길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는 '감'이라는 게 많이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문학을 좀 치는 학생들은 선지를 보면 일단 답이 될 만한 선지들은 이상하기는 해요. 아예 뜬금없기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즉 답이 될 만한 것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하기만 해도 답으로 찍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선지까지 이상해지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개 중에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감이 있는 학생들의 장점은 감이 있다는 거지만, 단점은 감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도 듣고 기출 분석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답의 선명도를 얘기합니다. 사고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라 시를 100% 해석할 수 없고, 〈보기〉의 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자. 단, 선지를 보고 근거를 어떻게 끌고 와서 답 선지를 조금이라도 선명하게 만들 거냐. 이게 우리의 관건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논리', 그리고 이런 선지를 판단해봤다는 '경험'이 답 선지의 선명도를 조금이라도 높여줄 거라고 수업하고 있지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지 세 개만 보겠습니다. 1번, 2번 선지는 그냥 감으로도 되는 것이라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화라 약간 자제하는 겁니다. 원래 수업 시간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나랑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답은 1번, 2번은 안 돼.'라고 하는데, 또 이러면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으니 지금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할 겁니다!!

③ (나)의 '살'이 '땅의 주민임을 표시'한다고 하며 '흉한 짐승'처럼 '형벌받'았다고 여기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이 부각되는군.

- 당연히 사실 관계를 따져줘야 합니다. 즉 감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지문 돌아가서 차분하게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 내가 되돌려주어야 할 것은
> 고뇌를 담기 위해 태어난 두 손,
> 방황을 하기 위해 태어난 두 다리,
> 그리고 땅의 주민임을 표시하는 살,
> 언젠가는 흙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이 형벌의 뼈.
> 아, 아, 암흑의 관을 쓰고 땅을 기어가는 흉한 짐승처럼
> 고뇌하는 이마와 방황하는 긴 막대기를 지닌
> 이 형벌받은 살.
>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되돌려주어야 할 혀.

돌아가서 읽을 땐, 의미 단위를 반드시 정독해야 합니다. 제발 해당 부분만 읽지 말고, 의미 단위를 정독하세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포인트는 하납니다. 결국 인간은 죽는다. 쉽게 말해 손, 다리, 살, 뼈, 혀 이런 것들을 자연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죠. 인간은 유한하다. 이걸 나열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3번 선지가 아주 선명하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맥락을 고려해도 이건 선명할 수밖에 없는 선지입니다.

④ (나)의 '스스로의 영혼을 불어 끄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신의 소멸과 죽음을 동일시하며 인간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이 선지를 열심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문학 좀 하는 사람들은 사실 4번 선지가 이상하긴 합니다. '인간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이 말이 되게 거슬려요. 왜냐하면, 이 시는 육체의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은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요. 다만, 그럼에도 인간으로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죽음이라는 인식 자체를 극복하고 싶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인간 존재의 한계 자체는 받아들이고, 다만 그럼에도 버둥거려볼까?

뭐 이런 거거든요. 정확히는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노력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보기〉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러면 4번 선지를 보통 시험장에서 세모 치거든요. 그럼 5번 선지가 또 거슬리게 돼요. 즉 4번과 5번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선지에 대한 선명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 논리를 끌고 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지문 맥락에서 끌고 올 겁니다.

입술의 노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스스로의 영혼을 입술로 불어서
불씨를 일으키는 데 사용했던 입은
흙으로 되돌아가도,
입술의 노래는
대지에 묻히지 않으리.

보이시나요? 우리 시 읽으면서 계속 중요하게 잡았던 논리입니다. **'육체는 죽어도 노래는 남는다.'**

하나 혀로서 부른 입술의 노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보이시나요? **'노래는 안 죽어'** 쉽게 말해 '정신의 소멸과 죽음을 동일시하여' 이 말이 선명하게 틀린 겁니다. 육체는 죽어도 노래(=정신)는 남는다. 내지는 노래는 안 죽어! 이거거든요. 쉽게 말해 영혼=정신의 소멸과 육체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얘도 이상한 게 맞아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오히려 인정하되, 무력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명하려는 노력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니까. 다만 이것만 갖고는 이상하긴 한데,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럼 고민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아! 육체는 죽지만 노래는 남는다는 건 육체랑 노래, 내지는 정신과 분리하고 있는 거니까, 정신의 소멸과 죽음을 동일시 하는 건 아니겠다는 논리가 붙어버리면 4번 선지의 판단이 훨씬 선명해진다 이겁니다.

⑤ (가)의 '한 모금 샘물'이 없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을, (나)의 '촛불'이 '바람 속을 뛰어가는' 것은 정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함축하는군.

- 네. 이미 4번 선지에서 설명한 내용과 겹칩니다. 사실 시를 처음에 읽을 땐, 촛불이 바람 속을 뛰어가고, 그게 우리고, 이런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랐지요. 시를 읽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제자가 선지로 해석을 해 주면 우리가 이걸 적절성을 따져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발악'하는 것은 정신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인정하되, 그럼에도 무기력해지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아보자는 어떤 노력과 대응되겠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4번이 선명하지 않으면 5번도 거슬리게 되지요.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승선

상모택 이상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